

특집

필기노트도 역사가 된다…우리가 만드는 경희의 역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지난 1999년, 우리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중앙박물관 산하에 '경희역사자료실'을 설립했다. 이는 대학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당시 사회 분위기와 개교 50주년이 맞물려 이뤄진 결과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해 내실이 부족했다. 업무 범위가 역사 기록물 및 시청각 기록물 수집·관리에만 한정돼 문서를 포함한 학내 전반 기록물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중앙도서관 산하 '경희기록관'이 출범했고 2013년에 경희역사자료실과 통합됐다.

우리학교와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하는 것부터 정보의 디지털화까지 경희기록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모전이다. 공모전은 예산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를 제외하면 경희기록관이 출범한 이후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경희기록관 남기원 계장은 공모전에 대해 "모든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우리학교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든 다 받는다"며 "지난 3년간 가치 있는 기록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2018년 경희기록관 공모전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달 7일에 종료된다.

그동안의 공모전을 통해 받아본 기록물 중 남 계장은 1955년 졸업앨범, 2007년 작성된 레포트, 1987년 작성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문건, 그리고 수업노트를 소개했다. 1955년 졸업앨범은 김지선 학생이 경희대 동문이었던 할아버지의 유품을 기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희기록관은 그동안 보유하지 못했던 1955년 졸업관련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공모전에서 기증된 당시 치과대학 조재오 교수의 학창시절 수업노트도 눈길을 끌었다. 남 계장은 "조 교수님이 우리학교 치과대학 1-2회 졸업생이신데 그 당시 수업을 들으며 필기했던 노트를 기증 하셨다"며 "당시 학교생활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준 자료이므로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 계장은 교직원 박삼문 씨가 기증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문건과 장광훈 학생이 기증한 2007년 레포트를 강조했다. 노동조합 문건에 관해 남 계장은 "1987년 당시 있었던 노조 소식지의 원고로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1 1954년 당시 열렸던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학장(총장) 취임식 2 김지선 학생이 기증한 1955년 졸업앨범 표지
3 치과대학 조재오 교수가 학창시절에 필기한 수업 노트 4 1956년 졸업식에 발행된 졸업장

레포트에 관해서는 "지금이야 비교적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 자료가 20년, 30년이 지나면 학교생활을 증명해줄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모전의 의의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남 계장은 "공모전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희기록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특히 교직원의 반응이 좋아 과거에는 기록물을 찾으면 그냥 버리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기록물에 대한 많은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중한 기록물이 버려지지 않고 경희기록관에 전달된다는 것이 공모전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퇴직 교원과 접촉해 기증을 요청한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초기 반응은 매우 미

온적이었다. 남 계장은 "경희기록관이 찾고 있는 자료 중 유독 부족한 것이 교수의 연구자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1년에 3건 정도 기증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희기록관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기록물로는 1964년에 작성된 『개교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와 1951년에 설립자가 쓴 『문화 세계의 창조』의 초판본이 있다.

『개교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남 계장은 "개교 15주년을 맞아 작성된 것이다"라며 "이른바 타임캡슐과 비슷하게 개교 50주년이 되면 펴보고 개교 100주년이 되면 펴보고 하나는 영구 보존하자는 취지로 총 3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 자료는 당시 회의가 진행됐던 중앙회의실 금고에서 발견됐다.

1951년 우리학교의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저술한 『문화세계의 창조』는 우리학교 교시의 유래가 된 책이다. 이

다. 하지만 남 계장은 당시 인상적인 대목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 한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정 대학을 흉내를 내서 그와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 하는 심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동양적이고, 세계적으로 내놔서 첫째가는 제일 대학과 경쟁해야 되겠다'를 꼽았다.

학장 취임식은 대학의 행사 중 큰 행사에 속한다. 하지만 당시 그 큰 행사는 지금 문과대 위치에 있던 나무판자 교사 위에서 진행됐다. 그만큼 당시 학교는 열악했다. 남 계장은 "그런 규모의 행사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 인상적이다"며 "당시의 포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희기록관은 학생운동 관련 문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동문인 문대통령의 영향이 크다. 남 계장은 "문대통령이 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학생운동을 이끌었다"며 "당시 문대통령이 읽었던 원고의 사본은 존재하지만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운동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 원고는 단순히 우리학교의 기록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기록물이 될 수 있어 꼭 찾아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4.19에 관련한 자료도 부족하다. 우리학교 범대에 다니던 이기태 학생이 4.19 시위를 하던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캠퍼스 신문방송국 앞에 있는 4.19 학생운동 기념탑도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4.19 당시 현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찾고 싶다는 것이 경희기록관의 입장이다. 과거 '미스 경희' 행사에서 사용된 왕관과 망토 등 학생사 자료도 찾고 있다.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정신, 문화와 같은 실체가 없는 것을 구체화하여 우리학교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경희기록관의 실질적인 역할이다.

남 계장은 "아직도 기록물은 전체의 10%만 모였다고 생각한다. 정리되지 않은 것을 배제하면 5%뿐"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본인이 소유한 기록물이 기록관에서 제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으로 기증을 꺼린다. 남 계장은 "기록물이라는 것은 기록관에 있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하며 가장 빛나는 것"이라며 "현재 사정상 기증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곧 보상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